

“재미없어 안가요”...우후죽순 작은도서관 시민 외면

광주에만 공립·사립 등 400개 넘어...내실있는 운영 안된채 방치 사립 13곳 연간 이용자 '0명'...예술·문화·놀이 복합공간 활용을

광주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400개를 넘어섰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조성된 작은 도서관을 줄이기 보다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특색에 맞춰 예술과 문화 오락, 놀이가 결합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은 총 417곳(동구 43곳, 서구 78곳, 남구 78곳, 북구 102곳, 광산구 116곳)에 달한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나 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 공공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자료도 다소 적은 편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으로 나뉘는데 사립의 경우 관리 부실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공립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도서관구입비와 인건비·프로그램비·운영비 등을 지원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립은 시설과 운영 면에서 열악한 곳이 대다수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화에 따라 전국에서 아파트 주거율이 가장 높은 광주는 아파트 내 사립 작은 도서관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작은 도서관 대부분이 방치되거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은빛마을 도서관'은 입구 안내문에 '도서관 시설 이용자가 저조해 봉사자 근무가 작년 12월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용가능 시간 역시 오후 2시부터 2시간밖에 안돼 도서 대출을 원할 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광산구 신가동의 'LH아름골 도서관' 역시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고 이용하는 이들도 없었다. 도서관 한 칸은 경비실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수기로 적힌 대출 목록표에는 1월에는 4명, 2월에는 3명만 적혀 있었다.

서구 차평동 대우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주민 5명 중 4명이 "우리 아파트에 도서관이 있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이가 있는 주부마저도

도서관 위치조차 알지 못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이용자 수가 한명도 없는 광주시에 작은 도서관은 13곳이나 됐다. 13곳 모두 사립이었다.

전문가들은 작은 도서관을 내실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특색에 맞게 지역예술가와 문화인들의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작은 도서관 담당자는 "사립인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냐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나뉜다"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사랑방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결국은 담당자의 역량이다"고 말했다.

실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에 국한되지 않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 광산구 신촌원시그림책마을 작은 도서관의 경우 마을 활

동가들이 적극 나서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 인근 광주보건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카페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2단지 '숲속작은도서관' 역시 방과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돌봄공간이 됐다. 학부모들이 영어 숙제를 돕고, 유치원 하원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이뤄져 가능한 일이었다.

김기현 남부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는 "작은 도서관은 이제 독서 뿐 아니라 음악감상, 강의, 레크레이션 등 모두가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에 '복지'를 접목시켜 노인들과 어린이 부모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교수들 “강제동원 정부안 철회하라”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은미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 227명은 30일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일본 대신 한국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차 번째 방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라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양국 과거사 문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피해자의 존엄과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외교적 흥정을 대가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윤 정부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사죄없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의 울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수들은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 교수들은 불의에 맞서 연대의 정신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교 배정, 내년부터 주거지 고려

2024학년도 고교전형에서는 현재 학생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고려돼 학교 배정이 이뤄진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내년에 고교에 진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다.

시교육청은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교 간 성적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배정기준에 '학생 거주지에서의 통학 거리를 고려해 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기계적으로 출신중학교를 기준으로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40분 이내 버스 통학 거리를 적용, 고교를 배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 등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통학 거리가 지나치게 먼 고교에 배정됐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편, 현재 선지원 추첨배정에서 정원의 20%를 먼저 뽑고 나머지 80%는 후지원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그동안 민원이 제기돼 왔던 중학교 출신 기준 배정 원칙을 보완한 게 특징"이라며 "현재 주거지를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원거리 고교 배정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뜯장’에 개 30마리 사육 ‘동물학대’ 수사

광주시 광산구 염소농장에서 뜯장에 개를 키우며 학대한 남성이 단속기관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경찰은 30일 광산구 오산동 자신의 염소농장에서 개 30여마리를 뜯장(바닥이 땅으로부터 떠 있는 철조망)에 키운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개를 가두고 불법으로 도축한다'는 고발을 접수해 이날 현장 확인에 나서 동물 도축 사실 여부와 동물 구매 통로 등을 조사했다.

당시 현장에는 개 뿐만 아니라 염소, 칠면조, 닭 등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축을 벌인 정황은 확보하지 못했다.

/김다민 기자 kdi@

무등산 친환경 결혼식 참여자 모집

국립공원공단 4월 20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4월 20일까지 '친환경 숲속 결혼식'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단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35쌍을 선정해 5월부터 10월까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회용품과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으로 진행되며, 예복대여·사진촬영·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답례품 등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국립공원만의 생태관광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knps.or.kr), 전화(033-769-955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